

전통마을 공동체 문화의 현황과 공간적 특성

김수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 조경학 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과거 일제 침탈에 의한 세시풍습의 금지와 미신타파, 계몽주의 등은 우리 주거문화 발달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분단 이후 지식인들의 친미, 친서방의 사회적 분위기, 근대화의 기치 아래 행해진 새마을 운동 사업은 전통마을의 해체와 파편화를 초래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그리고 농촌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파괴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최협, 1998). 더욱이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농촌정책의 적극적인 관심의 부재와 농촌 경쟁력 확보라는 구실아래 농촌인구가 더 감소되기를 촉진하기까지 하였다(임재해, 2000).

한편,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도시주민들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공통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체성과 공동체를 재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농촌진흥청, 2005; 행정자치부, 2007). 또,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우리의 주거 문화는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어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대안으로 전통마을의 사회적 건전성과 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삶터로서의 교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신상섭, 2000). 전통마을의 주거는 자연환경, 종교, 국민성, 그리고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심우경, 1987),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어느 하나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본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문화 요소의 산물로, 개인적인 욕구의 결과라기보다 집단 전체의 목표와 욕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Rapport, 1985: 73-74).

특히, 마을의 공동체 문화는 오랜 동안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었던 전통이었고,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총합,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실용성과 구체성을 생명으로 한다(이해준, 2005).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을 비롯한, 지리학, 인류학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건축이나 조경 분야에서도 전통마을의 입지와 배치 특성 등의 기본적인

양적 연구에서, 생태, 문화, 공간통사 등의 복합적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 공간의 공동체 요소라 할 수 있는 민속적 장치에 대한 미학적, 또는 경관적인 접근(김한배, 1981; 이재근, 1981; 김동찬 등, 1999; 장동수, 2001, 김수진 등, 2007)은 다소 소외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나 일반적 현실인식 수준에서 점검하고, 마을에 내재되어 있는 민속적 장치를 통해 공동체 문화의 공간적 특성과 장소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함량을 위한 주거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사례지는 비교적 문화적 가치가 있으며, 마을의 전승 상태가 양호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부·강원권의 3개 마을, 영남권에 14개 마을, 호남·제주권에 8개 마을을 사례지로 하였다(표 1 참조).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문헌조사와 답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로는 그간 작성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그리고 지역의 문집, 문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형도와 그간 발간된 보고서에서 실측된 마을배치도를 통한 현장 확인 작업을 하였다. 현장관찰 조사와 인터뷰 조사는 2006년 5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 진행되고 있으며,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 그리고 노인회 등의 촌로를 방문하여 공동체 공간의 위치와 마을 내력, 제의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함량을 위한 주거단지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 발표임을 다시 언급하는 바이다.

III. 결과 및 고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을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며, 이것의 한 표현이 환경에 대한 질서 부여이다. 즉, 만들어

표 1. 연구사례지

번호	구역	마을	소재지
1	충부	외암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	충부	상사	대전시 동구 이사동
3	강원	왕곡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4	영남	남사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	영남	닭실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6	영남	해저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	영남	양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8	영남	웃골	대구시 동구 둔산동
9	영남	원터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10	영남	단계	경북 산청군 단계리
11	영남	터동	경북 포항시 기북면 오덕2리
12	영남	하회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3	영남	괴시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4	영남	한개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5	영남	한밤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16	영남	부곡	경북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
17	영남	황전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8	호남	강골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19	호남	금곡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2리
20	호남	낙안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1	호남	도래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2	호남	방촌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23	호남	효동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호리
24	호남	원백암	전북 정읍시 철보면 백암리
25	제주	성읍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진 환경은 질서체계의 물리적 표현인 것이며, 모든 정주공간은 그 나름의 고유한 의미와 질서를 지니게 된다. 그 질서의 위계에는 신성함이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필영, 2001: 15).

전통마을의 공간을 크게 사회적 영역, 개인적 영역, 의식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공동체 공간은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공동체 공간을 기능적으로 정치·사회, 생활, 교육, 제의·놀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표 2 참조).

또, 사회적 영역은 정치, 생활, 교육 등의 공간으로, 의식영역은 당시 선비들에 의한 유교적 의례공간과 민중들에 의한 민속적 의례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3 참조). 의례공간은 마을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마을 울타리의 개념으로, 신성함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동체 공간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할 일정의 규범화된 상징적 구조와 의미를 설정하고 부여하였다(최덕원, 1994: 107).

의례공간 중 전통마을의 종가나 사당(가묘), 재실 등은 선현을 봉사하는 유교문화와 혈족주의적 토착문화가 함께 어우러

진 씨족촌락의 통일된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당시 공간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유교적 효심과 절개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열녀문, 효자비 등은 마을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유교적 공동체의 장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건축물은 아니지만,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마을 내의 모정은 전통마을의 구성원들의 자치규약과 대동단결, 휴식 등과 관련된 의미가 많으며, 자치적인 사회성을 띄고 있어,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생활 공동체에서는 공동우물[샘], 물레방아, 연자방앗간 등의 여성과 관련된 공동체 문화로 당시 외부 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만, 완전히 고립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부분적인 개방강과 고립감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교육 공동체는 서당이나, 서원, 정사와 같은 강학과 수기를 위한 공간과 제자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는데, 학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의례 행위와 맥을 함께 하며, 마을의 규모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의·놀이공동체는 당산나무, 큰 노거수, 서낭당 등의 공간으로 마을 내의 가장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지닌 요소로, 전통 취락의 환경구성 원리이자 경관요소로서, 취락의 입지, 환경구성 및 배치, 조경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환경설계의 방법으로, 한국적 전통조경의 사상과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 조경의 우리식 모델로서 환경설계의 사상 및 양식이라 할 수 있다(최원석, 2000). 또한, 외부적으로 수호신적 기능을, 내부적으로는 공간적 결속을 피하며, 마을의 공간을 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교의식과 성씨별 경쟁이 강한 영남 지역의 마을의 경우, 마을의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민속적 제의보다는 가문이나 혈연의 유교적 의례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성씨별 경쟁을 위한 세시행사나 축제적 기능을 위한 기원 고사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상의 구분이 엄한 조선시대의 사회상에서 양반과 평민이라는 신분, 계층별 구분은 있었지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동족부락민으로서 서로간이 조화롭게 공간을 분할하고, 유지해 온 두 계층들의 공동체 문화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동체적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IV. 적요

본 연구는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함량을 위한 주거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적인 자료 수집의 목적에서 국내의 25개 전통마을을 답사하

표 2. 연구사례지의 공동체 공간 현황

마을	공동체 공간				기타
	정치/사회	생활	교육	제의/놀이	
외암	종가(외암사당), 모정	빨래터, 디딜방아, 연자방아	-	상당[산신당], 느티나무 당산, 장승, 솟대, 마을숲(비보)	장승제, 당산제
상사	종가, 재실, 사우당, 유희비, 영귀대	우물[한천], 연못[방지]	봉강정사	느티나무 당산, 은행나무	소화동천
왕곡	함씨 종가, 효자각, 효자비	우물, 빨래터	-	마을숲, 오음산 기우제당, 소나무 당목[고사]	기우제 서당제
남사	이씨고가, 최씨고가, 분양고가, 사효재, 망추정, 광종석유허비, 사효재, 경무공사당	빨래터, 샘, 우물, 물레방아	니사재, 내현재, 초포정사, 이동서당, 사양정사, 삼백헌	당산나무, 동숲, 정자목, 은행나무, 용소바위, 거북바위, 말바위, 북바위	당산제, 니구산 [칠성제]
답실	종가, 청암정	-	삼계서원, 선천정사	서낭당[소실]	유곡팔경
해저	팔오현, 개암종가, 사당 단사정(소실)	바래미샘	학록서당(현 전원마을 서예학원)	술밭[마을숲]	-
양동	관가정, 향단, 무침당, 서백당, 설천정사, 수운정, 정충비각	우물, 빨래터	안락정, 경산서당, 강학당	관가정 앞 은행나무 당산, 서백당 뒤 은행나무 당산	고사
웃골	백불고택, 보본당, 정려각	우물, 지당	동계정, 북계정사(소실), 동천서원(소실)	대암, 회화나무, 느티나무 동수	부인동 구곡
원터	방초정, 열녀비각, 영모재, 명성재, 종가, 소종가, 화수정(소실)	우물, 지당	-	-	-
단계	박씨고가, 권씨고가	샘터, 시장, 물레방아	용담정사	돌부처(뚝대1), 당산(뚝대2)	-
덕동	종가[사우당], 애은당, 용계정, 별묘	주막거리	서당[덕연서원 훼손후 건립]	천제상, 당산목, 동제당, 마을입구의 송림	덕연구곡, 자금산
하회	양진당(종가, 별묘, 사당), 충효당	빨래터	화천서당, 옥연정사, 겸암정사, 민연정사, 원지정사, 병산서원	서낭당, 국사당, 삼신당, 성황당, 만송정	하회 16경, 동계, 별신굿
괴시	종택, 침수정	우물, 빨래터	-	작은동신, 큰동신[동수, 장승]	-
한개	한주종택, 북비고택, 침경재, 월봉정, 신도비	샘터, 빨래터	침경재, 한천서당, 일관정, 서문재, 여동서당, 대성학원	-	감음사
한밤	효자비, 충의비, 재실(경의재, 경절당, 동천정, 동산정 등)	우물[용샘, 굽샘 등], 빨래터, 물레방아(소실), 시장(폐시)	대청[대을동중서당]	성안숲, 팽나무 당목, 진동단, 비각, 상여집	동계, 석불입상
부곡	숫굴 옆 정자[소실]	빨래터, 아굴[용당], 숫굴[청룡당]	-	상당[서낭신], 하당, 기석, 용당	동고사, 도신제
황전	황전 의성김 종택(경암헌 고택), 도암정	웃뚝, 아래뚝, 우물, 공동세탁장, 용소	-	도암, 허당신[남신, 여신의 석상인 동신], 성황, 남기	기우제
강골	종택, 모정, 만휴정, 등각, 지식묘	큰샘(소리샘), 우물, 샘터	열화당	당산목	-
금곡	영풍정[모정], 지식묘	웃샘, 아래샘, 물레방아(소실), 연자방아(소실)	-	천룡당산, 국사당, 당산목, 선돌, 입석	당산제, 오방제
낙안	내아, 동헌, 객사, 향사당, 사창, 성황사, 여제단, 사직단(소실)	샘터, 빨래터, 물레방아, 지당, 허시[시장]	낙안향교	상.중.하당(돌탑, 괴목, 바위), 선정비각, 석구, 은행, 노거수	낙안팔경, 당산제
도래	양벽정, 우산각, 계은정, 석계공파 종가[터], 공교공파 종가[홍호돈 가옥], 괴고정	우물터, 빨래터, 샘터, 지당	영호정[서당]	당산(느티나무), 마을숲	-
방촌	위성털가옥(종가), 신도비, 동헌터, 지식묘, 다산단	옥샘, 지당, 우물터	다산재, 장천재, 석천서원, 계춘동 서재, 서당골	삼괴정 당산목, 돌장승, 입석, 비보숲, 허제비굴	별신제, 삼층석탑
효동	시정, 효녀, 효자비, 지식묘	우물(샘), 연자방앗간	-	4방위의 당산, 수살[입석]	동계
원백암	모정, 뒷모정	우물, 빨래터	-	12당산[장승, 당산목, 당산목, 장승[남근입석, 여성곡석]]	동계, 별신제
성읍	객사, 일관헌, 공덕비[채수강청터비, 강우진불망비 등], 절정, 유평터	원님물통, 노다리방죽	명륜당[향교], 정의향교	포계동산, 돌하르방, 팽나무 숲, 안활망당	-

표 3. 민속적 의례공간의 위치

마을	마을에서의 위치			
	상	중(마을내부)	하(입구)	기타
외암	상당[산신당]	느티나무 당산	장승, 솟대	마을숲, 비보림
상사	-	느티나무 당산, 은행나무	-	-
왕곡	오음산(기우)제당, 당목[성황당]	-	마을숲	-
남사	당산나무, 칠성제당	정자목, 은행나무, 용소바위, 거북바위	동숲	말바위, 북바위
답실	-	-	서낭당(소실)	-
해저	-	-	솔밭(마을숲)	-
양동	-	서백당 뒤 은행나무 당산	관가정 앞 은행나무 당산	-
웃골	대암	-	회화나무 당산, 느티나무 동수	-
윈터	-	-	-	-
단계	-	돌부처, 당산	-	-
덕동	천제당	-	당산목, 동제당, 송림[마을숲]	-
하회	서낭당, 국사당	삼신당	성황당	만송정
괴시	작은 동신[동수]	-	큰 동신[동수와 장승]	-
한개	-	-	-	-
한밤	-	-	성안숲, 팽나무 당목, 진동단	-
부곡	상당[서낭신]	-	하당, 기석	암굴[용당], 솟굴[청룡당]
황전	-	-	도암, 하당신[남신, 여신의 석상인 동신], 성황	남기[소나무 숲]
강골	당산목	-	-	-
금곡	천룡당산(노송), 국사당	우물신(윗샘, 아랫샘)	당산목(느티나무), 선돌	입석, 지석묘
낙안	돌탑	돌탑, 선정비각, (하당)바위, 노거수, 은행나무, 느티나무 당산	석구, 돌탑	-
도래	-	-	느티나무 당산	마을숲
방촌	-	삼괴정, 입석	돌장승	비보숲
효동	당산(고사), 수살(소실)	당산, 수살	당산, 수살	마을숲
원백암	여성곡석(소실)	12당산	당산목, 남근입석, 장승	-
성읍	-	포계동산, 팽나무숲, 안할망당	돌하르방	-

고,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전통마을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문화적 요소를 통해,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장소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통마을에서 인간과 자연은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의 글귀처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또 그 속에서 인간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며, 의지하며, 이해하고, 때론 단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이 향유해야 할 이상향이다. 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로 영유하고자 그들만의 규범의 정신을 마을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 문화와 교훈을 전통마을이라는 오래된 미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1. 김동찬, 이윤수, 임상재(1999) 무속 공간모형에 의한 남사마을 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95-107.
2.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2007) 전통마을 공동체적 공간의 의미해석-전남 영광군 효동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94-105.
3. 김한배(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전통 마을의 경관구

- 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국정브리핑자료(2005. 2. 16).
 5. 신상섭(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1): 20-31.
 6. 심우경(1987) 조경에서 생태학과 풍수사상의 관련성. 한국정원학회지 1(6): 149-160.
 7. 李載根(1981) 民間信仰이 韓國傳統 마을의 造景要素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 河回·良洞마을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필영(2001)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9. 이해준(2005)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 32: 213-234.
 10. 임재혜(2000) 농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방향 구상과 실천 과제. 한국민속학 33: 255-297.
 11. 장동수(2001) 한밤마을 의례경관의 의미. 한국정원학회 19(35): 1-10.
 12. 최덕원(1994)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3. 최원석(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최협(1998) 전통적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 낙안읍성의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9: 193-261.
 15. 행정자치부(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6. Amos Rapoport(1985) House Form and Culture. 이규목(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